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1월 17일
제2026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집회 21,5 참조)

기도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중〉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2024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나해)

제 1 독 서 다니 12,1-3 | 그 때에 네 백성은 구원을 받으리라.

화 답 송 시편 16(15)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2 독 서 히브 10,11-14.18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복 음 마르 13,24-32 |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한다.



복음 묵상

교회는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하며, 가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난한 이들과 깊은 형제애를 나누도록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와 가난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시어(2코린 8,9 참조),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되었습니다(루카 4,18; 19,10 참조). 교회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바로 전 주일에 기념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가난의 깊은 관련성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가난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참되게 거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헐벗고 모든 것을 빼앗긴 십자가의 가난에서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부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시면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따라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난을 닮아야 한다고 천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가 되셨듯이 교회도 비우고 버려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하셨듯이 교회도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교회 헌장, 8항 참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닮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난을 자기 것으로 할 때,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기며 보호와 도움을 구하는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난을 간직할 때 시작합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부분)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집회 21,5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집회 21,5 참조).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다다른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이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는다는 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가난한 이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이 말씀을 성찰하고 ‘읽어’ 봅시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는 그들과 친교를 이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피 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 주지 않으신다”(집회 35,21-22). 하느님께서서는 주의를 기울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 곧 가난한 이, 소외된 이, 고통받고 잊힌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에서 배제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목숨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또는 생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부의 축적을 위하여 사회 공통의 규범을 어기고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망상입니까! 행복은 다른 이들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봉헌된 이 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자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목 활동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정규 거행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현존과 필요를 인식하라는 도전 과제를 모든 신자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목적 기회입니다. 이날은 가난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계획들을 실행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들을 지원하는 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제, 축성 생활자, 남녀 평신도는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영하고 포용할 때마다 하느님의 이 침묵이 깨집니다. 가난한 이들은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습니다. 부를 최우선시하고 자주 물질 재화라는 제대 위에 인간 존엄성을 희생 제물로 바쳐 버리는 문화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며, 삶의 본질이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혀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연대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이들의 빛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바뇌에서 발현하시어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라는 잊지 못할 메시지를 남겨 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서 이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겸손한 가난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리라 확신하며 마리아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 드립니다.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연중 제33주일) 미사 중에 인류 발전 캠페인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7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7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2025년도 첫영성체 반 부모님 사전 미팅

- 일시 : 11월 17일(일) 오후 3:10 (친교실 A-1,2)
- 2025년도 첫영성체 반을 시작하기 전, 대상자 부모님들 사전 미팅을 진행합니다. 내년도 첫 영성체 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3학년 이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2024년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

- 일시 : 11월 17일(일) 오후 3시
- 장소 :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문의 : 김영석 마티아 (703) 835-6308
- 꾸르실리스타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어 꾸르실료 교육받으실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동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7 구역 대항 교리 퀴즈 대회

- 일시 : 11월 23일(토) 오후 5시 - 오후 7시(친교실)
- 구역 대항 교리 퀴즈대회 문제 출제 범위 및 자세한 사항은 구역장과 구역 봉사자들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고향 동산 묘지 축복 안내

- 일시 : 11월 23일(토) 오전 11시
- 위령 성월 동안 고향 동산에 잠들어 계신 분들의 묘지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묘지 축복을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고, 당일 11시 전에 묘지에 오시기 바랍니다.

9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24일(일) 오전 11:30 (B-3,4)

10 요한회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24일(일) 오전 11:30 (B-1,2)

11 2024 주일학교 CCD 가족 대림 피정

- 일시 : 12월 7일(토) 오후 3시-오후 7시 (본당, 하상관)
- 주제 : Joy, Hope, Blessing, Salvation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루카 1,46-47)
- 내용 : 성극, 성가, 찬양으로 함께하는 목주기도
- 등록 : 주일 2시 미사 후 본당 입구 (등록비 가정당 \$20)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2 2025년 매일미사 책 신청 / 제대초 봉헌

- 2025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 책 신청을 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성체와 성혈을 이룰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 Lucy Food Project Donation

11월 24일(일) 까지

알링턴 교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Food donation과 Personal Hygiene Items를 받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 친교실, 하상관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사랑 한국

고국 성지 순례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 9월 26일(금)
- 모집 마감 : 12월 1일(일) 교중 미사 후까지
- 신청 : 사무실(추후에 일정과 순례 금액 공지 예정)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원은 최소 35명에서 최대 70명 예상
- 신청 방법 : 순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접수하면 나중에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순례 일정

- 9월 16일(화) - 18일(목) 배론성지 (피정, 친교, 순교자 현양 대회 참석)
- 9월 18일(목) - 20일(토) 경상도 지역 성지
- 9월 20일(토) - 22일(월) 전라도 지역 성지
- 9월 22일(월) - 24일(수) 충청도 지역 성지
- 9월 24일(수) - 26일(금) 서울-경기 지역 성지

새 영세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지난 주일에 16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새 신자들이 열심히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 신자들께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2,200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위해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일)과 10일(일)에 죽음 준비 교육이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봉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11/17 이번 주	우드브릿지 구역
11/24 다음 주	센터빌 1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1월 10일(연중 제32주일)

봉헌금	\$ 9,349.61
교무금	\$ 9,300.00
교무금(신용카드)	\$ 6,250.00
감사 헌금	\$ 920.00
2차 헌금	\$ 10,806.00
온라인 봉헌	\$ 1,610.00
합계	\$ 38,235.61

* 새신자 감사 헌금 \$ 2,200.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1월 22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1월 24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특집 다규 : 형제애로 이어진 100년의 기록, 뉴튼 수도원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